OPEN ACCESS

지역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파주시 장단삼백(長端三白) 사료 고증과 메타데이터 설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Building a Digital Preservation System for Regional Agricultural Documentary Heritage: Focused on the Historical Verification and Metadata Design of 'Jangdan Sambaek' in Paju

오 선 경 (Seon-Kyung Oh)**

목 차

1. 서 론
2. 장단삼백의 사료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
3. 디지털 보존 사례와 파주시 현황 분석
4. 통합형 디지털 보존 체계 구축 전략
5.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파주시 장단삼백(長端三白)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과 관련된 고문헌, 지리지, 근대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술논문 등을 조사·분석하고, 파주문화원, 파주시 중앙도서관, 경기도 메모리,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등 관련 기관의 기록관리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관련 자료는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와 통합 검색 구조, 원문 디지털화, 장기보존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 보존과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대상자료를 유형별·주제별로 체계화하고, DC·MODS·EAD를 결합한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또한 OAIS 참조 모형에 기반한 장기보존 구조와 유관 기관 간 논리적 연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참고 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ays to build a digital preservation system for documentary heritage related to regional agricultural specialty products, focusing on the case of Jangdan Sambaek in Paju. To this end, it examines historical documents, geographical records, modern newspaper articles, research reports, monographs, and academic papers related to Paju rice, Jangdan soybeans, and Gaeseong ginseng, while also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and services provided by relevant institutions, including the Paju Cultural Center, Paju Central Library, Gyeonggi Memory, and the Gyeonggi Cyber Library. The analysis shows that related materials are dispersed across multiple institutions and systems, while standardized metadata, integrated search structures, digitization of original materials, and long-term preservation systems remain insufficient, thereby limiting their integrated preservation and use. In response, this study systematizes the target materials for digital preservation of Paju's agricultural specialty documentary heritage by type and subject, and proposes a Paju-specific hybrid metadata schema combining DC, MODS, and EAD. It also presents a long-term preservation structure based on the OAIS reference model and a logical inter-institutional linkage strategy, thereby offering a reference model for the systematic preservation and use of documentary heritage related to regional agricultural specialty products.

키워드: 지역 농특산물 기록유산, 디지털 보존 체계, 장단삼백, 사료 고증, 메타데이터 설계, 파주시
Regional Agricultural Documentary Heritage, Digital Preservation System, Jangdan Sambaek, Historical Verification, Metadata Design, Paju

* 이 논문은 2025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oskpro@joongbu.ac.kr / ISNI 0000 0004 6419 9098)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5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477-501,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477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은 천하 사람들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불려 왔다. 이처럼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기초 산업이자 지역사회의 경제・문화적 기반을 형성해 온 핵심 산업이다. 최근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업은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동시에 식품・유통・관광산업 등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축적되는 자료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농업 관련 기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기록유산이자, 향후 정책 수립과 지역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정보자산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이러한 점에서 농업 및 농특산물 관련 자료의 아카이빙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 보존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농특산물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 생산기술, 유통 구조, 생활문화, 역사적 경험이 장기간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기록 역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지역 농특산물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유산 보존, 관광자원 개발, 지역 브랜드 가치 강화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농업 일반 자료나 농업유산, 농업경영 기록에 관한 논의에 치중되어 특정 지역의 농특산물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사료적 고증과 디지털 보존 체계 설계를 함께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파주시 장단삼백(長端三白)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기록관리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여 대상자료 목록화, 메타데이터 설계, OAIS 기반 장기보존 구조, 기관 협력 전략을 포함하는 파주형 디지털 보존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파주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곳이 임진강과 한강 하류의 비옥한 평야를 기반으로 예로부터 다양한 농업 생산이 활발했던 경기 북부의 대표적 농업지역이며,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 등 이른바 장단삼백으로 대표되는 농특산물 관련 기록이 조선시대 지리지, 근대 신문기사, 지역 특산물 서술 속에 축적되어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을 검토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을 정보자산으로 재구성하고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지리적・시간적・자료적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범

www.kci.go.kr

위는 경기도 파주시를 중심으로 하였다. 다만 파주의 농업과 농특산물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 변동, 개성과의 인접성, 경기 북부 농업권과의 연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필요에 따라 장단·교하·적성 등 역사적 행정구역과 파주와 인접한 관련 지역의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를 포괄하였다. 특히 장단삼백의 역사적 연원과 지역적 전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시대 지리지와 농서, 근대 신문기사, 일제강점기 자료, 현대의 연구보고서와 학술연구 성과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 중 사료적 가치가 높고 소실 위험이 큰 조선시대 고문헌과 일제강점기 생산 자료는 디지털 보존의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범위는 고문헌, 지리지, 근대 신문기사,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등을 포함하였다.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파주의 농업 구조, 유통, 진상, 장시, 토공물, 인물·저술, 역사문화유적, 지역경제와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 자료까지 함께 수집·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와 사료 분석을 통해 장단삼백 관련 기록의 역사적 연원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국내외 농업 자료 및 지역 기록 디지털 보존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파주문화원, 파주시 중앙도서관, 경기도 메모리,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경기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수집과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여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관리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료 목록화 원칙,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OAIS 기반 장기보존 구조, 유관 기관 협력 및 연계 전략을 포함하는 통합형 디지털 보존 체계를 설계하였다. 다만 기관 현황 분석은 공개 웹사이트와 공개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자 면담이나 내부 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할 기관별 참여 의지, 예산 확보 가능성, 시스템 연동 조건, 내부 기록관리 절차까지는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3 선행연구 개관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농업유산의 기록화, 농업경영기록의 관리, 자료의 장기보존과 활용, 농업 데이터 기반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 단위의 농업 및 농특산물 자료에 대한 기록화와 디지털 보존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농업유산의 기록화와 관련하여 김영진과 홍은미(2006)는 1880년대에 편찬된 6종의 한국 농서 중 서양의 실험농학적 내용이 포함된 3종의 농서(農政新編, 農政撮要, 重麥說)를 분석하여 당시 수용된 서양 농학의 과학기술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과학의 발전과정에서 이 시기가 실험농학의 기원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상범 외(2014)는 농업유산의 보전·계승, 지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록화 방안을 개발하고 조사 항목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조사 및 기록 항목은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과 신청서 등으로부터 도출하였고, 농업유산의 발굴에서부터 지정에 이르는 업무분석을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기록내용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록 항목 간의 관계와 중복 및 농업유산과 관

www.kci.go.kr

련한 주체, 대상, 행위 등을 고려하여 DB를 설계・개발하고, 이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과 관리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농업유산 기록의 항목화와 구조화가 정책적・행정적 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업경영기록 관련 연구로는 유찬주(2006)가 로짓 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의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농가의 경영기록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기록이 농가의 경영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농가의 외부조건 개선뿐 아니라 내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농가경영관리와 함께 농가경영기록에 대한 교육・연구・지도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순열 외(2007)는 농가의 경영기록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경영기록의 유용성과 농업경영진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농가의 경영기록이 경영개선과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일반노트보다는 전산화된 경영 장부나 컴퓨터에 의한 기록관리가 유용한 점을 확인하였다. 최세현 외(2011)는 효율적인 농업경영의 전제 조건인 농업인의 농업경영기록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기록하고 경영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농업경영기록장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 및 보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윤정과 이상래(2018)는 농업회계기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농업회계 정책 방향과 교육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는 농업기록이 단순한 행정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개선, 소득증대, 교육 및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료의 장기보존과 활용 기반 측면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이 농업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전략을 제시하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농업 관련 자료가 단순한 참고정보를 넘어 정책・산업・연구를 뒷받침하는 기반 자원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농업유산의 기록화 필요성과 농업기록의 관리・활용 가치, 데이터 기반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농특산물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료 고증과 디지털 보존 체계 설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 장단삼백의 사료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

2.1 농업 기록유산의 개념과 가치

인류는 당대에 생성된 기억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달해 왔으며, 이러한 기록은 축적과 활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 디지털, 모바일 환경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원본 실물자료의 수집과 보존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활동으로 시간이 경과되어도 해당 기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진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이경

www.kci.go.kr

란, 2008).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빙은 원본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수단인 동시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료 활용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문화유산과 기록자료는 단순히 보존해야 할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화・아카이빙・서비스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이해되고 있다(유동환, 2013).

농업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은 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록과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수집・선별・정리・보존・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문헌, 지리지, 신문기사, 통계자료, 조사・연구보고서, 사진자료, 구술기록과 같은 전통적 기록뿐 아니라 전자책, 전자잡지, 학술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통계 및 법령정보 등 디지털 파일도 포함된다. 따라서 농업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은 단순히 종이자료를 스캔하여 전자화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의 생산 맥락과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록화하고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며, 검색과 열람, 다운로드와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조직하는 종합적 관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특산물 관련 자료는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농업 기술, 상업적 유통망의 형성 과정이 집약적으로 축적된 기록으로 단순한 생산 이력이나 향토자료가 아니라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활동, 생활문화의 전개 과정을 텍스트와 수치, 이미지 형태로 축적한 복합적 정보자원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리지에 수록된 토산물 기록, 실학자들의 농서, 근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생산 및 거래 현황, 통계자료와 사진자료 등은 특정 지역 농특산물의 역사성과 경제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로 기능한다(김일권, 2017). 나아가 이러한 기록유산은 디지털화・아카이빙・서비스 과정을 통해 단순 보존의 대상을 넘어 지역문화의 해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유동환, 2013).

그러나 시대별 생산 주체와 보존 기관이 달라 관련 자료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자료는 훼손이나 소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농업 관련 고문헌, 통계자료, 신문기사, 사진자료 등은 역사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급격한 지역 개발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영농 지식과 생활 경험 또한 점차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문헌과 근대 사료, 사진, 구술기록 등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고 분산된 자료를 수집・보존・접근・활용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보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장윤금, 2010).

또한 이러한 체계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현재 농업 관련 자료는 개별 기관의 도서관, 기록관, 디지털 컬렉션, 학술정보시스템 등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따라서 농업 관련 기록의 디지털 보존은 단순한 디지털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자료를 수집・디지털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형 구조는 농업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www.kci.go.kr

지역 차원의 농업・역사・문화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신정아, 2020).

결국 농업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은 농업 관련 기록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이용자 중심의 검색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의 농업사와 농특산물의 역사적 가치를 재구성하는 종합적 관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화 작업이 아니라 지역 농업자원의 가치 확산, 지역 정체성 보존, 역사문화자원의 재해석, 정책・교육・연구 활용 기반 마련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2 장단삼백의 역사적 연원과 사료 고증

2.2.1 파주쌀 한수위

2011년 3월부터 도입된 파주쌀의 통합 브랜드인 한수위는 임진강과 한강 유역의 비옥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파주 지역의 대표 쌀 브랜드이다(김종원, 2020). 파주쌀은 백태, 인삼과 함께 이른바 장단삼백으로 회자되어 온 지역 농특산물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이인재, 2011). 다만 장단삼백이라는 명칭과 조선시대 왕실 진상 여부는 후대의 지역 특산물 서술과 사료 기록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주쌀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1454년 「세종장헌대왕실록」 부록으로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제148권 「경기 철원도호부 장단현」에는 장단현의 토의(土宜)와 토공(土貢)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기록에는 〈표 1〉과 같이 오곡(五穀), 조, 팥, 메밀, 뽕나무, 삼, 지초, 속단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장단삼백이라는 명칭 자체는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 그러나 여러 논저와 파주시를 비롯한 여러 웹사이트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장단지역에서 생산된 쌀, 콩, 인삼은 그 맛과 영양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되는 지역특산물로서 이를 아울러 장단삼백이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된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는 장단삼백 명칭의 직접 출처가 아니라 장단 지역 농산물과 토공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사료로 보아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원문에서도 장단현의 토의는 오곡・조・팥・메밀・뽕나무・삼으로, 토공은 지초로, 약재는 속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태백산사고본 52책 148권 18장 A면, 국편영인본 5책 621면으로 확인된다.

둘째, 1778년 순암 안정복이 고조선에서 고

〈표 1〉 「세종실록지리지」 제148권 장단현 기록

厥土肥塉相半, 風氣早寒. 墾田一千六百四十五結. 【水田居三分之一.】 土宜五穀, 粟、小豆、蕎麥、桑、麻. 土貢, 芝草. 藥材, 續斷.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되며, 기후가 일찍 추워진다. 간전(墾田)이 1천 6백 45결(結)이다. (논이 ⅓이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메밀・뽕나무・삼[麻]이요, 토공(土貢)은 지초(芝草)이며, 약재(藥材)는 검산풀뿌리[續斷]이다.
* 오곡은 일반적으로 벼(稻), 보리(麥), 기장(黍), 조(稷), 콩(豆)을 지칭하나, 「세종실록지리지」 장단현 조항에서는 오곡과 조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www.kci.go.kr

려 공양왕까지의 역사를 강목체로 서술한 역사서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2상, 충렬왕 8년 임오년 6월 기사에는 '미화정가법(米貨定價法)'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安鼎福, 1778). 다만 이 기록은 파주쌀 자체에 대한 직접 사료라기보다는 고려 후기 쌀이 경제적 교환과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보조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신문 가운데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의 쌀, 즉 미곡 관련 기사가 확인되며, 대부분은 미곡조합의 설립과 운영, 저장・통제, 관련 대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자료집에는 1936년 10월 9일자 「매일신보」 기사 초록으로 장단군 회의실에서 미곡통제조합 설립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관계자에게 동의서를 모으기로 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2021). 또한 1937년 10월 31일자 「매일신보」에는 「稻作 大豐을 機會로 倉庫貯藏을 奬勵 長湍米穀統制組合에서」라는 기사가 확인되어 장단 지역 미곡 관리와 저장・유통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稻作 大豐을 機會로 倉庫貯藏을 奬勵 長湍米穀統制組合에서, 1937). 경기문화재단 자료집에서도 장단군 미곡통제조합 설립 발기인회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2.2.2 파주 장단콩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유역의 장단콩은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서 선발된 '장단백목(長湍白目)'과 관련하여 역사적 연원이 확인된다. 권업모범장은 1906년 통감부가 농업기술의 시험・조사・지도와 농산물 개량을 위해 설치한 농업연구기관이다. 장단백목은 1913년 권업모범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단콩은 파주시 장단면의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진 대표적인 콩으로 설명된다(노승혁, 2021). 장단콩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실록지리지」 제148권 경기 조항에는 장단현을 비롯하여 현 파주시 권역과 관련되는 적성현, 교하현, 임진현의 토의와 토공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토의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산물을, 토공은 국가에 바치던 공납품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조선 전기 파주 일대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世宗實錄 148卷). 다만 이 기록은 장단콩이라는 명칭이나 근대 이후의 장단콩 품종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라기보다는 장단 및 파주 권역의 곡물 생산 환경을 보여주는 배경 사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근대 신문자료에서는 장단콩의 품질, 유통, 공동판매, 특산물 표기와 관련한 기사가 확인된다. 1930년 9월 15일자 「중외일보」의 「長湍郡內의 大豆共販所 三個所設置」 기사에는 장단군 내 대두 공동판매소 설치 내용이 나타나며, 이는 장단콩의 유통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長湍郡內의 大豆共販所 三個所設置, 1930). 또한 1936년 5월 24일자 「매일신보」의 「長湍大豆에 特別標記 設定」 기사는 장단대두가 당대에 별도 표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長湍大豆에 特別標記 設定, 1936). 따라서 일제강점기 장단콩 관련 신문기사는 장단콩이 근대기에도 품질과 유통 면에서 주목받은 지역 특산물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www.kci.go.kr

2.2.3 파주 개성인삼

파주 장단현 등에서 재배되는 인삼은 개성인삼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 파주 개성인삼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08년 대한제국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에서 발간한 「한국삼정요람」(韓國蔘政要覽)에는 개성 부근 8개 군(개성・풍덕・장단・토산・금천・평산・서흥・봉산)의 인삼포 규모와 소재지가 제시되어 있다(대한제국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1908). 따라서 장단은 개성인삼의 주요 재배권역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한국삼정요람」 해제에서도 1908년 6월 당시 개성 부근 8개 군의 인삼포 분포가 수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장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둘째, 근대 신문기사에서는 파주지역 인삼 재배 허가와 재배 적합성에 관한 기록이 확인된다. 1931년 7월 2일자 「매일신보」의 「地質이 最適한 坡州에 人蔘栽培 今後는 郡守가 許可」 기사는 파주가 인삼 재배에 적합한 지질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이후 인삼 재배 허가 주체가 군수로 설정되었음을 보여준다(地質이 最適한 坡州에 人蔘栽培 今後는 郡守가 許可, 1931).

2.2.4 파주의 특산물과 토공품

첫째, 2001년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 3대 하천 유역 종합학술조사Ⅰ: 임진강의 환경과 삶」에서 「동국여지승람」, 「임원경제지」, 「읍지」, 「조선지지략」(朝鮮地誌略)에 수록된 임진강・한탄강 유역 군현별 특산물을 정리하였다(경기도박물관, 2001). 그 내용을 종합하면 〈표 2〉와 같이 어류 관련 항목이 많으며, 그 밖에 파주는 포(蒲), 석회(石灰), 석창포(石菖), 게(蟹), 장단은 명주(絲), 삼(麻), 송담, 녹반(綠礬), 게(蟹), 산약(山藥), 무명(綿), 적성은 도기(陶器), 적토(赤土), 꿀벌(蜂蜜) 등이 특산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1809년 실학자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가 편찬한 「규합총서」(閨閤叢書)의 동국팔도소산조(東國八道所產條)에는 지역별 특산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파주의 특산물로는 해(蟹), 곧 게가 기록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게」 항목에서도 「규합총서」의 '동국팔도소산' 항목에 파주의 게가 소개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파주 특산물로서 게가 문헌상 확인됨을 보여준다(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표 2〉 파주지역 특산물

구분	동국여지승람	임원경제지	읍지	조선지지략
파주	銀口魚, 蟹, 葦魚, 秀魚, 石菖, 蒲	石灰, 秀魚, 銀口魚, 葦魚, 蟹	銀口魚, 葦魚, 秀魚, 蟹, 石菖, 蒲, 卯細魚	銀口魚, 蟹, 葦魚, 秀魚, 石菖, 蒲
장단	絲, 麻, 松覃, 訥魚, 錦鱗魚, 秀魚, 銀口魚, 蟹, 石菖, 蒲, 綠礬	綠礬, 石灰, 絲, 麻鯉魚, 秀魚, 錦鱗魚, 訥魚, 葦魚, 白魚, 蟹	絲, 麻, 松葦魚, 訥魚, 秀魚, 白魚, 河錦鱗魚, 蟹, 石菖, 蒲, 金銀花, 山藥	絲, 麻, 松葦魚, 訥魚, 秀魚, 錦鱗魚, 銀口魚, 蟹, 石菖, 蒲, 綠礬, 綿
교하	秀魚, 葦魚, 蟹	秀魚, 魚葦, 蟹	秀魚, 細魚, 葦魚, 蟹	秀魚, 葦魚, 蟹
적성	陶器, 赤土, 蜂蜜, 訥魚, 錦鱗魚, 蟹, 白花蛇	赤土, 錦鱗魚, 訥魚, 白花蛇, 陶器	陶器, 赤土, 訥魚, 錦鱗魚	陶器, 赤土, 蜂蜜, 訥魚, 錦鱗魚, 蟹, 白花蛇, 鑛物

www.kci.go.kr

셋째, 「세종실록지리지」 제148권 경기 조항에 기록된 파주지역(임진현, 적성현, 장단현)의 토공물은 임진현과 장단현의 경우 지초(芝草), 적성현의 경우 느타리(眞茸)와 지초(芝草)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 파주 권역의 산물과 공납품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世宗實錄 148卷).

2.3 디지털 보존 대상자료의 범위와 목록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을 위해서는 개별 사료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할 수 있는 대상자료 목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록화 작업은 단순한 참고문헌 정리에 그치는 작업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화할 것인지, 자료 간의 관계를 어떠한 구조로 조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다.

파주시 농특산물 관련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농업서와 지리지, 토산 및 공물 관련 문헌, 근대 신문기사, 조사・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등 여러 유형으로 분산되어 존재한다. 특히 장단삼백과 관련된 기록은 농업・농산물 자체를 직접 다루는 사료뿐 아니라 파주의 인물・역사문화유적, 지리와 지지, 지역경제와 유통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 속에도 폭넓게 산재해 있다. 따라서 디지털 보존 대상자료는 특정 품목에 관한 직접 자료와 더불어 해당 농특산물의 역사적 맥락과 지역적 배경을 해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료의 선정은 장단삼백과의 직접적 관련성, 파주 농업사의 맥락성, 자료유형, 원문 접근 가능성, 보존 필요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 등 장단삼백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1차 대상으로 수집하고, 개별 품목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파주의 농업 구조, 유통, 진상, 장시, 토공물, 지역경제, 인물・저술, 역사문화유적 관련 자료를 2차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후 중복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의 생산 시기와 형식,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여 고문헌 및 일제시대 자료, 각종 보고서,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의 다섯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는 다시 농업・농학, 농특산물, 인물・역사문화유적, 지리와 지지, 기타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은 향후 디지털 보존의 우선순위 설정, 메타데이터 설계와 검색 체계 구축, 장기보존 구조 마련을 위한 선행 단계라 할 수 있다.

3. 디지털 보존 사례와 파주시 현황 분석

3.1 디지털 보존 사례 분석

3.1.1 국외 사례

국외 농업 및 관련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농무부 산하 농업 전문도서관인 미국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L), 캐나다 농업・농식품부 소속 캐나다농학도서관(Canadian Agriculture Library, CAL), 유럽의 도서관・기록관・박물관・시청각기관 자료를 연결하는 범유럽 플랫폼인 유로피아나(Europeana),

www.kci.go.kr

〈표 3〉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유형별 디지털 보존 대상자료

구분	세부 범주	대표 자료	활용방안
고문헌, 일제시대 자료	농업・농학/농특산물/지리와 지지/기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규합총서」, 「구포건삼도록」, 「파주군읍지」 등	장단삼백의 역사적 근거와 지역 농업의 장기 변천 검토
각종 보고서	농업과 특산물/인물과 역사문화유적/지리와 지지/기타	「2000 파주 장단콩 축제 평가보고서」, 「파주시 축제고도화 및 특화・육성 연구용역 보고서」, 「2021년 ㈜파주장단콩웰빙마루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Ⅰ: 임진강의 환경과 삶」, 「파주시 역사자료 보존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완료보고서」 등	지역 정책, 축제, 유통, 기록관리 현황 파악
단행본	농특산물/기타	강만길, 「개성상인과 인삼재배」, 김영진 역주, 「조선시대 전기 농서」,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I)」, 박정일・설혜심・옥순종,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 등	사료 해석과 농업사・인삼사・지역사 맥락화
학술논문	농업・농학/농특산물/지리와 지지/기타	김영진, 「12세기 이후 한국농서의 형성 및 편찬유형에 관한 종합적 고찰」, 김일권, 「역사민속 물산지리지로서 「세종실록지리지」의 팔도 곡물 분포와 특성 연구」, 박경안, 「안목의 파주농장에 관한 소고」, 박평식, 「조선전기의 인삼정책과 인삼유통」 등	심화 분석과 연구성과 연계
학위논문	농업/지역사/지리와 지지/기타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과 농촌사회 변동」, 이용기,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동계와 마을자치」, 정명현, 「서유구의 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배영주,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파주시를 중심으로」 등	지역 농업, 유통, 공동체, 지리 인식, 축제 활용 등 확장 분석

* 대표 자료는 자료 유형별 주요 사례만을 제시하였음

국제기구 생산 자료와 역사적 장서를 함께 보유한 농업 정보기관인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벼 연구 특화 국제연구기관인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도서관(Colorado State University Libraries, CSUL), 미국 전역의 도서관・기록관・박물관 자료를 연결하는 공공 디지털 플랫폼인 미국 디지털공공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의 공식 웹사이트와 관련 플랫폼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성격, 핵심 디지털 기능, 보존・연계 방식, 파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국외 농업 및 관련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은 단순한 자료 축적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 컬렉션의 조직화, 표준 메타데이터의 적용, 통합 검색 환경의 구축, 장기보존 체계의 마련, 기관 간 연계 구조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 역시 기관별 자료 제공 수준을 넘어 자료 유형별 조직화와 메타데이터 표준화, 단일 접근점 기반의 검색 구조, 장기보존과 협력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합적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1.2 국내 사례

국내 농업 및 관련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www.kci.go.kr

〈표 4〉 국외 디지털 보존 사례 분석

구분	자료 성격	표준·플랫폼	핵심 기능	보존·연계 방식	시사점
NAL	농업 전문 장서, 특별 컬렉션, 정부문서, 연구자료	AGRICOLA, PubAg	디지털 컬렉션, 전시 기능	통합 검색 아래 농업 전문자료 연결	농특산물 관련 전문 컬렉션 구축, 통합 검색 체계 마련
CAL	농업·농식품 분야 전문자료, 정부간행물	FSLN,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네트워크 기반 온라인 열람, 정부간행물 연계 제공	연방 과학도서관 네트워크와 정부간행물 플랫폼 연계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협력 구조 설계
Europeana	유럽 문화유산 디지털 객체(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3D)	EDM	통합 검색, 주제·기관·세기별 탐색 제공	EDM 기반 표준 메타데이터와 다기관 연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와 다기관 통합 검색 체계 구축
FAO	농업·식량 관련 역사적 장서와 기술 문서	FAO 온라인 목록	온라인 목록, 기술 문서 및 연속간행물 검색 지원	국제기구 생산자료와 역사적 장서를 병행 보존	농업 기록의 장기보존과 연구·정책 활용을 함께 고려
IRRI	벼 연구성과, 데이터셋, 유전자원 정보	Publications and Datasets, Genebank	출판물, 데이터셋,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문헌과 데이터, 생명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	문헌 중심 보존을 넘어 데이터와 연구지원 기능까지 포함
CSUL	지역 농업·천연자원 관련 일차자료	finding aids, digitized collections	research guides, 디지털 컬렉션 제공	지역기반 컬렉션을 아카이브 형태로 보존·서비스	지역 농업사와 생활사 자료를 결합한 로컬 아카이브 모델
DPLA	전국 단위 문화유산 디지털 자료	DPLA MAP, API	단일 검색창, 주제별 탐색, 전시, 교육용 컬렉션 제공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와 파트너 네트워크 기반 통합 제공	분산 자료를 하나의 접근점에서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형 구조

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과학 분야 전문도서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농업·농촌 정책연구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정보관, 국립농업박물관, 농업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농업·식량·농촌 관련 국가기록을 제공하는 국가기록원, 농업계열 대학의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농협대학교 도서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관련 플랫폼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 범위, 핵심 디지털 기능, 보존·연계 방식, 파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국내 농업 및 관련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자료 수집 범위와 디지털 서비스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는 하나의 기관이 모든 기능을 담당하기 보다는 전문 컬렉션의 구축, 표준 메타데이터의 적용, 통합 검색 구조의 마련, 장기보존 체계의 설계, 기관 간 협력과 공공 서비스의 연계를 바탕으로 전문자료 축적, 지역 기반 자료 수집, 주제별 검색, 공공 서비스, 연구성과 확산 기능을 결합한 복합형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3.2 파주시 농특산물 자료의 기록관리 현황 분석

파주시 농특산물 자료의 기록관리는 현재 파주문화원과 파주시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메모리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경기문화재단과 같은 광역 단위 기관이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자

www.kci.go.kr

〈표 5〉 국내 디지털 보존 사례 분석

구분	자료 성격	표준·플랫폼	핵심 기능	보존·연계 방식	시사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도서관	본청 발간자료, 시험연구보고서, 농업과학 연구성과	RDA Discovery, 농서남북	통합 검색, RDA Discovery, 시험연구보고서, 디지털농업실록, 농서남북 제공	발간자료와 연구성과를 검색·유통하고 외부 학술정보 네트워크와 연계	농특산물 관련 전문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구지원 기능과 결합한 전문도서관형 모델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자료, 저장소 기반 성과물	전자도서관, CMS, IR, Repository	전자도서관시스템, CMS, IR, 연구발간물 공개, Repository 운영	연구성과 축적·공개와 디지털 플랫폼 기능 결합	농특산물 기록의 보존과 함께 연구보고서·논문 등의 확산 기능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정보관	농업기술원과 산하 농업기술센터 생산 연구·지도자료	전자북(e-book) 플랫폼	전자북, 소식지, 시험연구보고서, 연구·지도사업 자료 제공	자체 생산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축적·공개	파주지역 농업기관이 생산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보존하는 로컬 축적 모델로 활용
국립농업박물관	농업 관련 문헌, 유물, 발간자료 수집·보존·전시·교육	유물 검색 서비스, 발간자료 서비스	유물 검색, 발간자료 서비스, 디지털아카이브팀 운영	유물·기록자료의 수집·관리·디지털화를 제도적으로 수행	농특산물 기록을 문헌에 한정하지 않고 유물, 시청각자료, 생활자료까지 확장
국가기록원	농업·식량·농촌 관련 국가기록을 주제별로 구조화하여 제공	국가기록포털, 주제별 검색, 기록콘텐츠	주제별 검색, 기록콘텐츠, 디지털 컬렉션 제공	정책 맥락 설명과 기록물 연계를 함께 제공	농특산물 기록도 주제 기반 분류와 맥락 설명을 결합한 서비스 구조
농협대학교 도서관	농업계열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하는 학술정보서비스	전자도서관 시스템	전자책 중심 열람, 대출·예약·반납 서비스 제공	학습지원형 디지털 열람 서비스 중심	전문 아카이브 모델과는 다르지만 이용자 접근성과 교육 활용

료의 수집 주체와 서비스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공 범위 또한 서로 달라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사와 문화유산 자료는 비교적 축적되어 있으나 농업 및 농특산물 자료는 별도의 주제 체계로 조직되지 못한 채 여러 기관과 컬렉션에 분산되어 있다.

파주문화원은 파주의 역사, 인물, 문화유산, 발간자료를 중심으로 '파주 아카이브'를 운영하며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공되는 컬렉션은 파주이야기, 문화유산, 학술자료, 도서자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농특산물·진상품 관련 자료가 독립된 주제 컬렉션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농업 관련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하나의 주제 맥락 안에서 검색·활용하기는 어렵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민간기록사업과 지역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으로, 기록관리팀을 중심으로 파주 기록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록물 수집·평가·전시,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시민참여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채록단 운영, 장단마을 기록화, DMZ 관련 자료 수집 등 파주지역 기록을 발굴·수집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화 사업이 농특산물 관련 기록을 독립적인 컬렉션으로 구조화하고 공개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광역 단위 플랫폼인 경기도 메모리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은 파주 관련 자료를 부분적으로

www.kci.go.kr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경기도 메모리는 경기도 전역의 기록자료를 집성하는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파주 관련 자료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나, 농업과 농특산물 자료는 별도의 주제 컬렉션으로 묶여 있지 않고 여러 범주에 분산되어 있다.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역시 통합자료검색과 경기도 자료검색, 학술정보검색 등을 제공하지만, 농특산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포괄하거나 독립된 주제 아카이브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자원의 조사·연구, 기록·보존·관리, 디지털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나, 현재 홈페이지 구조와 서비스는 예술, 지역, 뮤지엄, 유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파주지역 농업 및 농특산물 자료를 지역별·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검색·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는 아직 부족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주시 농특산물 자료의 기록관리는 여러 기관에 의해 분담되고 있으나, 농특산물 자료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 수집체계와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통합 검색 구조, 장기 보존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보존 체계는 기관별 기능을 단순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분산된 자료를 하나의 접근 구조 안에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3.3 파주시 농특산물 자료 관리의 한계와 시사점

현재 파주시 농특산물 자료 관리 체계는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관련 자료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장단삼백(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과 관련된 고문헌, 근대 신문기사, 사진, 구술기록 등 중요한 사료들은 파주문화원, 파주시 중앙도서관, 광역 단위 플랫폼, 기타 소장처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기관은 자체 목적과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용자가 장단삼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검색하거나 직접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이는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저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와 목록화 체계가 미흡하다. 자료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통의 기술 기준과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마련되어 있다면 통합 검색과 상호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 관련 기관들은 서로 다른 목록 규칙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기록물·시청각자료·사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기술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자료 간 연계와 재구성이 어렵고, 농특산물 관련 기록은 하나의 정보자산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남게 된다.

셋째, 장기보존을 위한 디지털 보존 구조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재 관리 방식은 목록 제공이나 디지털 파일 축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파일 형식의 변화, 시스템 노후화, 저장 매체의 불안정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기보존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www.kci.go.kr

종이 기반의 근대 신문, 고문헌, 사진자료는 물리적 훼손의 위험이 크고, 지역 원로의 영농 경험과 생활 기억에 의존하는 구술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한 디지털화만으로는 기록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이 개별 기관의 산발적 관리 수준을 넘어 상호 연계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와 단일 접근 구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NAL,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사례는 농특산물 관련 전문자료를 주제별 컬렉션으로 축적하고 연구지원 기능과 결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uropeana와 DPLA 사례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와 단일 접근점 기반의 통합 검색 구조가 분산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임을 시사한다. 또한 CAL과 DPLA의 네트워크형 서비스 구조는 파주시, 파주문화원, 파주시 중앙도서관, 광역 플랫폼, 국가 단위 학술·기록정보 서비스 간 연계 전략의 근거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는 전문 컬렉션 구축, 메타데이터 표준화, 단일 접근점 기반 통합 검색, OAIS 기반 장기보존 구조, 기관 간 논리적 연계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핵심 과제는 자료의 수집 자체가 아니라 분산된 기록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조직하고 검색하며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4. 통합형 디지털 보존 체계 구축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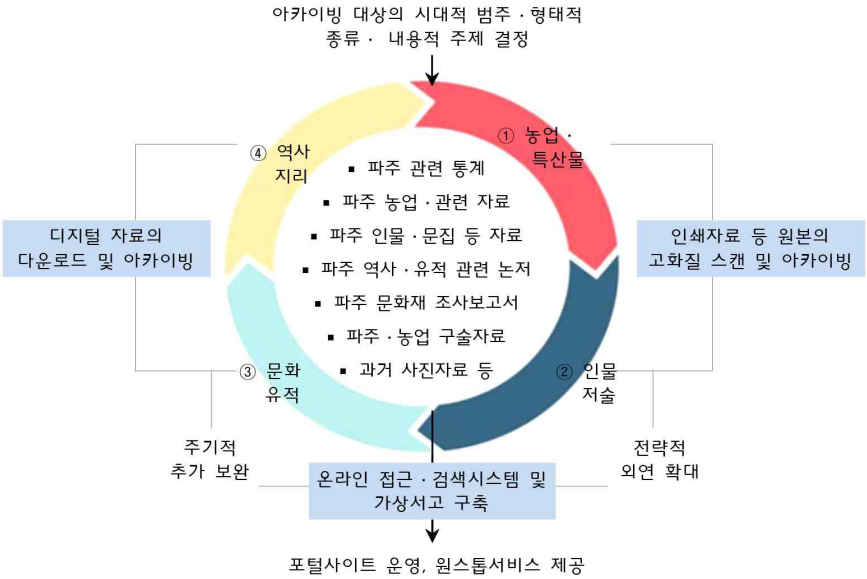
4.1 디지털 보존의 기본 원칙과 방향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통합형 디지털 보존 체계는 단순한 자료의 디지털화에 머무르지 않고 수집 대상 설정, 자료 선별과 조직화, 디지털 전환, 통합 검색, 장기적 보존과 확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농업·농특산물 자료를 중심축으로 하되, 인물·저술, 문화유적, 역사·지리 자료를 함께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파주 관련 통계, 농업 관련 문헌, 인물 및 문집 자료, 역사·유적 관련 논저, 문화재 조사보고서, 구술자료, 과거 사진자료 등을 함께 수집·조직하고, 이를 디지털 전환과 통합 검색 체계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는 다음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집 범위의 포괄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지리적으로는 현재의 파주시에 한정하지 않고 장단·교하·적성 등 역사적 행정구역과 관련 지역 자료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으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포괄하되, 사료적 가치가 높고 멸실 위험이 큰 조선시대 고문헌과 일제강점기 자료를 우선 수집·디지털화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자료 유형과 주제 범주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 등 장단삼백 관련 자료는 핵심 대상이지만, 이를 설명하는 인물·가문 저작, 장시와 토공물 기록, 역

www.kci.go.kr



〈그림 1〉 파주시 농특산물 자료의 디지털 보존 기본 구조

사 유적, 구술 및 사진 자료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고문헌, 지리지, 근대 신문기사, 보고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등 다양한 매체를 포괄하는 복합적 자료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기존 디지털 자원의 연계와 원본 실물 자료의 직접 디지털화를 병행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이나 학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원문 링크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연계하고, 디지털 파일이 없거나 품질이 낮은 자료는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직접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하나의 주제 체계 안에서 검색 · 열람 ·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일 접근점 기반의 가상서고와 포털형 서비스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보존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초기에는 핵심 자료군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되, 이후 구술자료, 시청각자료, 민간 소장자료, 최신 연구성과를 단계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보존 체계는 일회성 저장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 · 확장되는 지역 지식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요컨대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는 포괄적 수집,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 다층적 자료 범주 설정, 단계적 디지털 전환, 통합 검색 구조, 지속적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역사적 맥락을 보존하고, 향후 연구 · 교육 · 정책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4.2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통합형 디지털 보존 체계에서 핵심은 분산된 자료를 일관된

www.kci.go.kr

기준으로 기술하고, 이를 하나의 검색 구조 안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설계이다. 이를 위해 장단삼백 자료의 품목별 구분, 역사적 지역 범위, 자료유형의 다양성, 분산 소장 특성을 메타데이터 항목 설정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특산물, 지역명, 시대/시기, 자료유형, 소장기관, 원문 존재 여부를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자료 입수 시에는 생산연도, 출처, 권한 정보, 디지털화 방식 등을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료는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 등 핵심 농특산물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파주의 농업 구조, 유통, 장시, 토공물, 인물·저술, 문화유적 등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배경자료도 포함하였다. 또한 원자료의 훼손 가능성이 높거나 접근이 어려운 자료는 우선적인 디지털 전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전문 컬렉션 및 통합 플랫폼형 사례에서 확인되는 주제 분류, 자료유형, 생산·제공기관, 시기·지역 정보, 원문 접근 경로를 스키마 요소 설정에 반영하였으며, 자료적 특성과 서비스 목적을 고려하여 DC(Dublin Core),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를 조합하였다. DC는 기본 식별 요소, MODS는 주제·지역·시기 등 상세 기술, EAD는 소장기관과 상위 컬렉션 등 기록 맥락 표현에 적합하다. 따라서 로컬 아카이브의 기초 기술 체계로는 DC+MODS+EAD 조합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광역·국가 단위 플랫폼과의 연계 단계에서는 EDM 또는 DPLA MAP과의 매핑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료에 공통 적용 가능한 기본 식별 요소를 설정한다. 둘째,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주제·지역·관련 품목 요소를 강화한다. 셋째, 소장기관, 원문 접근 여부, 권한, 파일 형식 등 관리·보존 요소를 포함한다. 넷째, 향후 자료 확장과 기관 간 연계를 고려하여 상호운용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 스키마의 특징은 범용적인 서지기술 요소에 더하여 관련 특산물, 지역명, 시대/시기, 소장기관, 원문 존재 여부와 같은 지역 맞춤형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용자는 특정 품목, 지역, 시기, 자료유형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고 동일 주제의 다른 자료와도 연계할 수 있다. 〈표 7〉은 파주 장단콩 관련 근대 사료인 1906년 4월 27일자 「황성신문」 기사 「長湍輸出品」에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예비 적용한 사례이다. 다만 제안한 스키마는 실제 운영 시스템의 파일럿 테스트나 전문가 검토를 거친 확정안이 아니라 대표 자료 유형에 대한 예비 적용을 바탕으로 한 기초 설계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4.3 OAIS 기반 장기 보존 구조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는 단순한 스캔본 저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www.kci.go.kr

〈표 6〉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요소 정의(안)

구분	메타데이터 요소	표준 매핑	파주 농특산물 아카이브 적용 내용	필수 여부
기본 식별	식별자	DC: Identifier	자료별 고유 식별번호 부여	필수
	표제	DC: Title	자료명, 기사명, 사진명, 구술기록명 등	필수
	생산자	DC: Creator	저자, 발행처, 구술자, 사진 촬영자, 기록 생산자	필수
	생산연도	DC: Date	최초 생산 및 발행 연도	필수
	자료유형	DC: Type	고문헌, 지리지, 신문기사, 사진, 보고서, 구술, 논문 등	필수
	언어	DC: Language	국문, 한문, 영문 등	선택
내용 기술	관련 특산물	MODS: Subject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 등 대상 품목 지정	필수
	주제어	MODS: Topic	재배, 유통, 진상, 장시, 미곡조합, 토공 등(통제어휘 적용)	필수
	지역명	MODS: Geographic	파주, 장단, 교하, 적성, 개성 등 발생·언급 지역	필수
	시대/시기	MODS: Temporal	조선전기,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현대 등	선택
	요약/초록	DC: Description	자료의 핵심 내용 및 농특산물 관련성 서술	선택
	관련 인물·기관	MODS: Name	생산자 외 관련 인물, 기관, 단체명	선택
관리 및 보존	소장기관	EAD: Repository	파주문화원, 중앙도서관, 개인 소장 등 원본 위치	필수
	원문 존재 여부	로컬 요소	디지털 원문 존재 여부 표시	선택
	원문 접근 경로	DC: Identifier/Relation	URL, URI, 내부 파일 경로 등	선택
	파일 형식	DC: Format	PDF, JPG, TIFF, MP3, MP4 등	선택
	권한/이용조건	DC: Rights	저작권 상태, 공공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등	필수
	디지털화 방식	로컬 요소	원문 링크 수집, 직접 스캔, 사진 촬영 등	선택
맥락 및 연계	상위 컬렉션	EAD: Archival Hierarchy	장단삼백, 파주 농업사, 지역문화유산 등 컬렉션명	선택
	관련 자료	DC: Relation	동일 주제·동일 인물·동일 지역 자료 간 상호 연결	선택

〈표 7〉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실제 적용 예시

구분	메타데이터 요소	데이터 매핑 값
기본 식별	식별자	PJU-2026-N0001(로컬) / UCI: G701:B-00093782919
	표제	長湍輸出品 (장단수출품)
	생산자	황성신문(皇城新聞)
	생산연도	1906-04-27
	자료유형	신문기사(Newspaper Article)
	언어	국한문혼용(kor)
내용 기술	관련 특산물	장단콩(대두)
	주제어	수출, 단두, 무역
	지역명	장단
	시대/시기	대한제국기
	요약/초록	"長湍輸出品 仁川에 輸出... 京畿道의 主要物產은 大豆, 米, 牛皮... 仁川으로 出口함으로 이를 謂之湍豆라 呼함이라..." (장단 지역 대두의 일본 고베/오사카 수출 및 품질 우수성 기록)
관리 및 보존	소장기관	국립중앙도서관(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원문 존재여부	Y(디지털 원문 제공)
	원문 접근경로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782919
	파일 형식	image/jpeg
	디지털화 방식	Reformatted digital(기증받은 원문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
	권한/이용조건	저작권 만료(공공누리 제1유형)
맥락 및 연계	상위 컬렉션	장단삼백 아카이브-장단콩 컬렉션

www.kci.go.kr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자료의 진본성, 무결성, 접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 보존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파주시 농특산물 관련 자료는 고문헌, 근대 신문기사, 조사・연구보고서, 사진자료, 구술자료 등 생산 시기와 매체 형식이 서로 다른 이질적 자료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회성 디지털화만으로는 안정적 보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내외 사례와 파주시 현황 분석은 디지털 자료의 단순 축적만으로 장기적 접근성과 보존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ISO 14721로 제정된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참조 모형을 적용하여 장기 보존 구조를 설계하였다. OAIS 참조 모형은 입수, 보존저장, 데이터 관리, 운영관리, 보존계획, 접근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료의 수집부터 보존, 검색,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장기보존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입수 단계에서는 파주문화원, 파주시 중앙도서관, 광역 플랫폼, 개인 소장처 등 여러 출처에 분산된 자료를 표준화된 제출정보패키지(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로 반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대 신문기사, 고문헌 스캔본, 사진자료, 구술녹취 파일 등은 자료 형식이 다르더라도 표제, 생산연도, 관련 특산물, 지역명, 소장기관, 권한 정보, 원문 접근 여부 등의 공통 메타데이터와 결합하여 하나의 입수 단위로 정리되어야 한다. 즉, 입수 단계의 핵심은 자료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존과 통합 검색이 가능한 구조로 표준화하여 시스템에 편입하는 데 있다.

둘째, 보존저장 단계에서는 반입된 SIP를 보존정보패키지(Archival Information Package)로 변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AIP는 원문 파일뿐 아니라 메타데이터, 파일 형식 정보, 무결성 검증 정보, 관리 이력을 함께 포함하는 장기 보존 단위이다. 이를 위해 체크섬(checksum) 기반 무결성 검증, 장기보존 포맷 적용, 복수 저장소 백업, 포맷 마이그레이션 계획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고문헌 이미지, 근대 신문기사, 구술・시청각자료처럼 매체 특성이 다른 자료가 함께 포함되므로 자료 유형별 보존 방식과 파일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관리 단계에서는 자료의 검색과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은 동일한 주제의 자료가 여러 기관과 자료유형에 흩어져 있으므로 관련 특산물, 지역명, 시대/시기, 자료유형, 관련 인물・기관, 상위 컬렉션 정보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단콩', '일제강점기', '유통'과 같은 요소를 조합하여 신문기사, 보고서, 사진자료를 함께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보존 체계의 운영 주체와 정책, 권한, 품질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료 반입 기준, 메타데이터 입력 규칙, 디지털화 품질 기준, 공개 범위, 저작권 처리, 정기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파주시와 유관 기관이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운영 규범으로 기능한다. 즉, 장기 보존 체계는 기술 시스템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 분담과 관리 정책을 함께 필요로 한다.

다섯째, 보존계획 단계에서는 파일 포맷 변화, 시스템 노후화, 저장 매체의 불안정성에 대

www.kci.go.kr

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구술자료와 시청각자료는 재생 환경 변화에 취약하므로 포맷 지속가능성, 갱신 주기, 대체 포맷, 마이그레이션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보존 체계가 일회성 저장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관리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

여섯째, 접근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통합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정보패키지(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를 생성·제공해야 한다. 이때 시스템은 원본 AIP를 직접 노출하기보다 서비스용 DIP를 통해 원문 이미지, 요약 정보, 메타데이터, 관련 자료 링크, 저작권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 등 품목명과 지역, 시기, 자료유형을 조합하여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OAIS 기반 장기 보존 구조는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을 단순히 수집·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산된 자료를 표준화하여 입수하고, 안정적으로 보존하며,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결합될 때,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단일 접근점 아래에서 식별·검색·연계·보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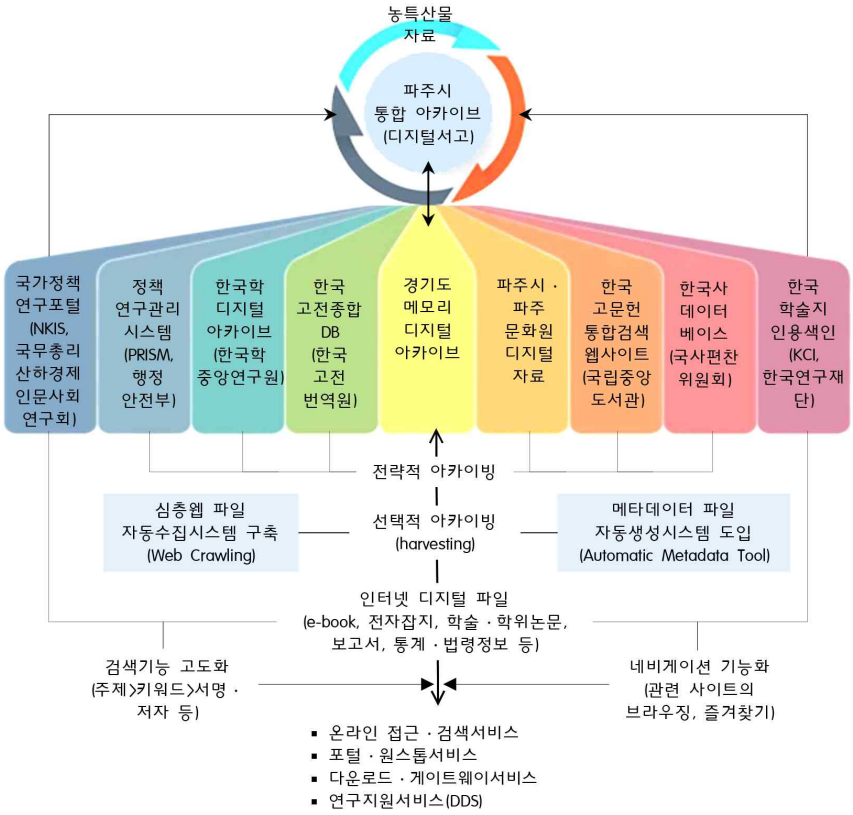
4.4 유관 기관 협력 및 연계 전략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은 현재 파주시청, 파주문화원, 파주시 중앙도서관, 경기도 메모리,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외부 학술정보 플랫폼 등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형 디지털 보존 체계는 모든 원본 자료를 물리적으로 한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각 기관의 소장 자료와 관리 권한은 유지하면서 이용자에게는 단일 접근점을 제공하는 논리적 연계 구조를 전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기관의 자료와 관리 권한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기반 접근성을 높이는 CAL의 FSLN 구조와 여러 기관의 자료를 단일 접근점으로 연결하는 DPLA의 파트너 네트워크 방식을 파주 지역 여건에 맞게 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통합 아카이브의 조정 주체이자 단일 검색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파주문화원과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지역자료의 발굴·정리와 소장 맥락 제공을 담당하며, 경기도 메모리·경기도 사이버도서관 및 국가 단위 학술·기록정보 서비스는 원문·서지·메타데이터 연계 자원으로 기능하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 구조의 기본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파주시 통합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파주 지역 기관, 광역 플랫폼, 국가 단위 학술·기록정보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구조는 공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탐색적 연계 방안이며, 실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관별 참여 의사, 예산, 시스템 연동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형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관점의 통합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이용자는 농특산물명, 시대, 지역, 자료유형, 소장기관 등을 조합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단콩 관련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고문헌 기록, 사진자료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도 동일한 주제·지역·시기 정보를 기준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디지

www.kci.go.kr



〈그림 2〉 파주시 농특산물 자료의 협력 · 연계 구조

털 원문이 있는 자료는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외부 플랫폼 자료는 안정적인 링크와 서지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나아가 '파주쌀의 역사', '장단콩의 생산과 유통', '개성인삼과 장단 지역'과 같은 주제별 컬렉션을 구성하면 자료의 맥락을 해설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협력 구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자료 선정 기준, 메타데이터 입력 규칙, 공개 범위와 저작권 처리, 디지털화 우선순위, 링크 유지관리 방식 등은 개별 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파주시, 유관 기관, 기록관리 및 농업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 구조 안에서 점검될 필요가 있다. 결국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통합형 디지털 보존 체계는 분산된 자료를 공통 메타데이터와 검색 구조 아래 연결하고 기관별 기능을 분담하여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 재구성하는 협력형 모델로 구축되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

www.kci.go.kr

으로 통합형 디지털 보존 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 관련 고문헌, 지리지, 근대 신문기사, 조사·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디지털 보존 사례와 파주시 관련 기관의 자료관리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파주시 농특산물 관련 기록은 조선시대 지리지와 농서, 근대 신문기사, 현대 연구성과 등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장단삼백의 역사적 연원과 지역적 정체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사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단콩과 개성인삼은 근대 신문기사와 제도 자료를 통해 생산, 유통, 재배 권역의 특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파주쌀 역시 지역 농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장단삼백이라는 명칭과 일부 통설적 서술은 원문 사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지역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사료 고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파주시 농특산물 관련 자료는 파주문화원, 파주시 중앙도서관, 경기도 메모리,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경기문화재단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기관별로 수집 범위와 서비스 방식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 및 농특산물 자료는 독립된 주제 체계로 충분히 조직되지 못했으며,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통합 검색 구조, 장기보존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 체계 구축 방안으로 첫째, 장단삼백 직접 자료와 농업 구조, 유통, 장시, 토공물, 인물·저술, 문화유적 등 배경자료를 함께 포함하는 대상자료 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분산된 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기술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DC, MODS, EAD를 결합한 파주형 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셋째, 디지털 자료의 진본성, 무결성, 접근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OAIS 참조 모형에 기반한 장기보존 구조를 제시하였다. 넷째, 각 기관의 소장자료와 관리 권한은 유지하되 이용자에게는 단일 접근점을 제공하는 논리적 연계 구조를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공개 문헌과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관계자 면담, 민간 소장자료 조사, 구술 채록, 실제 시스템 구현, 파일럿 테스트, 전문가 검토까지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술자료와 민간기록 수집을 확대하고, 제안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OAIS 기반 보존 구조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국 파주시 농특산물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은 과거 자료를 단순히 저장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교육·정책·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계는 파주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델인 동시에 유사한 농특산물 기록유산을 보유한 다른 지역에도 참고 가능한 디지털 보존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경기도박물관 (2001). 경기도 3대 하천 유역 종합학술조사Ⅰ: 임진강의 환경과 삶. 용인: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2021).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 Ⅱ: 매일신보 1930~1940년대 기사 발췌. 수원: 경기문화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 地理志, 京畿, 鐵原都護府, 長湍縣. 조선왕조실록: 世宗實錄 148卷. 출처: https://sillok.history.go.kr/id/wda_40004004_003

김상범, 박종준, 이응철, 성혜정 (2014). 농업유산의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기록화 방안. 휴양 및 경관연구, 8(2), 25-34.

김영진 (2023. 02. 07). 한국삼정요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247

김영진, 홍은미 (2006). 1880년대 한국농서에 기록된 서양농업과학. 농업사연구, 5(1), 81-104.

김일권 (2017). 역사민속 물산지리지로서 「세종실록지리지」의 팔도 곡물 분포와 특성 연구. 한국문화연구, 33, 135-174. https://doi.org/10.17792/kcs.2017.33..135

김종원 (2020. 05. 01.). 한국인의 힘의 원천! 밥심, 살맛 나게하는 파주 '한수위' 쌀.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 뉴스룸. 출처: http://kfcpa.kr/%EB%89%B4%EC%8A%A4%EB%A3%B8/?vid=91

김훈수 (2023. 02. 07). 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114

노승혁 (2021. 05. 26.). 파주시, 한국 대표 콩 품종 '장단백목' 파종 행사.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072600060

대한제국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1908). 韓國蔘政要覽. 서울: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稻作 大豊을 機會로 倉庫貯藏을 奬勵 長湍米穀統制組合에서. (1937. 10. 31.). 每日申報, 3.

방윤정, 이상래 (2018). 농업회계기록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45(2), 276-290. https://doi.org/10.30805/KJAMP.2018.45.2.276

소순열, 유찬주, 장동헌, 황영모 (2007). 농업경영 기록 및 진단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신정아 (2020).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경기도메모리' 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161-16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161

安鼎福 (1778). 東史綱目. 第十二上. (발행지불명): (발행처불명).

유동환 (2013).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화콘텐츠연구, 3, 95-121.

유찬주 (2006). 농가의 경영기록 효과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3(3), 693-714.

이경란 (2008). 디지털 아카이빙 보존 전략에 관한 분석 및 연구: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빙 동향 연구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www.kci.go.kr

이인재 (2011. 06. 15.).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인재 파주시장. 농민신문.
출처: https://www.nongmin.com/article/20110614075648
長湍郡內의 大豆共販所 三個所設置. (1930. 09. 15.). 中外日報, 4.
長湍大豆에 特別標記 設定. (1936. 05. 24.). 每日申報, 4.
長湍輸出品. (1906. 04. 27.). 皇城新聞.
출처: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782919
장윤금 (2010).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93-20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4.193
地質이 最適한 坡州에 人蔘栽培 今後는 郡守가 許可. (1931. 7. 2.). 每日申報, 3.
최세현, 이상학, 손찬수 (2011). 농업경영기록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 Jeongbok (1778). Dongsa Gangmok. Vol. 12-1. (n.p.): (n.p.).
Bang, Yun jeong & Lee, Sang lae (2018). Current status and vitalization plan of agricultural accounting record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5(2), 276-290. https://doi.org/10.30805/KJAMP.2018.45.2.276
Chang, Yunkeum (2010). A study of digital archiving strategies for historical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93-20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4.193
Choi, Se Hyun, Lee, Sang Hak, & Son, Chan Soo (2011). A study on the current farm management record practices and the improvement plan.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1-29.
Establishment of three soybean joint sales centers in Jangdan County. (1930, September 15). Jungoe Ilbo, 4.
Ginseng cultivation in Paju, where the soil is most suitable, to be permitted by the county governor. (1931, July 2). Maeil Sinbo, 3.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Studies Center (2021). Life of Gyeonggi Resid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Ⅱ: Excerpts from Maeil Sinbo Articles from the 1930s to 1940s. Suw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www.kci.go.kr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1). Comprehensive Academic Survey of the Three Major River Basins in Gyeonggi-do Ⅰ: The Environment and Life of the Imjin River. Yongin: Gyeonggi Provincial Museum.

Jangdan Export Products. (1906, April 27). Hwangseong Sinmun. Available: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782919

Kim, Hoon-soo (2023, February 7.).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vailable: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114

Kim, Ilkwon (2017). Historical study on the dispersion of grains and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as a folkloristic product geography in Joseon Dynasty. Korean Cultural Studies, 33, 135-174. https://doi.org/10.17792/kcs.2017.33..135

Kim, Jongwon (2020, May 1). The source of Koreans' strength: Rice power, Paju "Hansuwi" rice that makes life taste better. Korea Festival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Newsroom. Available: http://kfcpa.kr/%EB%89%B4%EC%8A%A4%EB%A3%B8/?vid=91

Kim, Sangbum, Park, Jongjun, Lee, Eung-Cheol, & Sung, Hyejung (2014). Survey and documentation method for discovery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heritage. Journal of Recreation and Landscape, 8(2), 25-34.

Kim, Young Jin & Hong, Eun Mi (2006). Western agricultural science recorded in Korean agricultural books in the 1880s. Agricultural History Research, 5(1), 81-104.

Kim, Young-jin (2023, February 7.).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vailable: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24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 Changes and Futur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fter COVID-19 (Agricultural Outlook 2021, Vol. 1).

Korean Empire. Taxation Bureau. Ginseng Administration Division (1908). Hanguk Samjeong Yoram. Seoul: Korean Empire. Taxation Bureau. Ginseng Administration Division.

Lee, Injae (2011, June 15). Listening to local government heads: Lee Injae, mayor of Paju. Nongmin Newspaper. Available: https://www.nongmin.com/article/20110614075648

Lee, Kyung-Ran (2008). An Analysis and Study on Digital Archiving Preservation Strategies: Focusing on Research Trends in Domestic and Overseas Digital Archiving.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n.d.). Geography treatise, Gyeonggi, Cheorwon protectorate, Jangdan county.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nals of King Sejong, Vol. 148. Available: history.go.kr

Noh, Seung-hyuk (2021, May 26). Paju city holds sowing event for Jangdan Baengmok, a representative

www.kci.go.kr

Korean soybean variety. Yonhap News Agency.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072600060

Shin, JeongA (2020). Building local digital archives: The case of "Gyeonggi-do Memo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3), 161-16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161

So, Sun-yeol, Yoo, Chan-ju, Jang, Dong-heon, & Hwang, Young-mo (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nagement Recording and Diagnostic Capabiliti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pecial labeling established for Jangdan soybeans. (1936, May 24). Maeil Sinbo, 4.

The great harvest of rice as an opportunity to encourage warehouse storage by the Jangdan Rice Control Association. (1937, October 31). Maeil Sinbo, 3.

Yoo, Chan-ju (2006).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farm management record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3(3), 693-714.

Yoo, Dong Hwan (2013).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digital heritage study. Journal of Culture Contents, 3, 95-121.

www.kci.go.kr

www.kci.go.kr